

## 고린도후서 1장

1.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하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이다. 그러나 이 짧은 인사말(1-2) 속에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세 번이나 언급되었다.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2. 고린도와 아가야 지방은 어떤 관계일까?

경상북도와 대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아가야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다.

3. 문법 공부를 조금 해 보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①의 하나님이시요 자비②의 아버지시요'에서 밑줄 친 '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①은 일반적인 소유격이다. ②은 서술적 소유격이라고 한다. 즉 자비가 가진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란 뜻이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식 어법에 본래 이런 표현이 있었는지 아니면 외국어의 이런 어법이 들어온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비의 아버지'보다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모든 위로의 아버지'보다는 '온전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아버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다른 이 소유의 교회도 있는가?

4. 바울의 가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펄펄 끓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다. 무엇인가?

**찬송(3):**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찬송뿐이다. 헌금도 찬송이어야 하고 전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송이어야 한다. 예배도 찬송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어야 한다. 천국에 가서도 계속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5. 아내는 천식으로 10여 년간 고통을 겪었다. 처음 발병했을 때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살 준비를 하기도 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는 예전과 비교하면 거의 완치가 되었다싶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집사람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집사람을 찾는다. 불신자처럼 결론을 내면 '어느 누구보다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소질이 있는 모양이다'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며 이로서 우리는 환난 받는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4) →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6. 위로란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다. 3-7에 위로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헤아려 보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10번, 환난 혹은 고난이 심하기 때문이다.

7. 혹시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5)**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6).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간증(8-11) 아닐까?

8.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정도라면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9). 이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무관하지 않다. 고래밥(과자)밖에 모르는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고래밥을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부자(?)로 여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은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함(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위로의 크기가 다르다.

9. 아시아에서 당한 우리의 환란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11)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10. 바울은 사람들, 특히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들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잔피를 부리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을 정도로 진심으로 대했다는 말이다.

11. 13절은 ‘이것만은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무엇이 염려스러워 이렇게 아쉬운 말을 하는 걸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14)** 고린도 교회에서 심지어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한 논란까지 있었던 모양이다.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한 것까지 들먹인다(12). 바울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14절의 ‘대강’)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알지 않느냐는 것이다.

12.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읽어도 모르는 것은 쓰지 않았다는 말인가?

바울의 편지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를 뜻할 뿐이다. 남의 말을 꼭 뒤집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아마 이런 저런 의도를 바탕에 깔고 이런 말을 하는 걸 거야? 제발 그러지 말라는 뜻이다.

13.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예정했다가 변경하게 된 이유가 결코 무엇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가(15-22)?

**경솔한 처신(17):**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할 계획이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한 해명 같다. 절대로 가볍게 처신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다.

14. 고린도 교회가 안 보내주면 못 가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것을 고린도 교회의 대표가 직접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 것과 선교여행을 계속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말이다.

15. 다음 표현을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고쳐보자. ‘육체를 좇아 경영하여 예 예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자기 유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한 적이 있느냐? ‘예’ 하고 아니라 함이란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혹은 금방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함부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18) 신실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한다.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 ‘예 예’ 했다는 것은 ‘예’ 했으면 반드시 ‘예’ 했지 ‘예’ 해놓고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16.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시니)이시다(19). 그걸 어떻게 믿지?

바울과 실루아노(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증언하는 것이니 믿을만하지 않겠는가? 표면상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다. 자신들의 말이 믿을만하다는 근거를 하나님의 미쁘심에서 찾는다(18).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자신들도 그 분을 닮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뜻이 강하다.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는 것은 예수는 신실한 응답을 하신다는 뜻이다. 참고로 이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기사는 행 18:1-5에 있다.

17.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과 우리가 아멘(=진실로 그러합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같은 의미이지만 주체가 다르다:** ‘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고 ‘아멘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믿음)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예가 되는 것)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하고 믿는 것이다.

18.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오해도 갈등도 있을 수 없는 이유를 21-22절에서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권고케 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인을 치셨고, 성령을 주신 우리 사이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못된 짓을 함께 한 사이일수록 친하다고 한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우리 아니겠는가? 권고케 하심은 믿음에 대한 보증이고, 기름을 부으심은 사명을 주신 것이고, 인을 치신 것은 소유라는 표시이고,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다. 같은 의미의 반복이다.

19. 많은 말로 변명하게 된 것(15-22)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23) 때문이다.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너희를 야미는 일’이 될까?

급하게 고린도 교회로 가야할 문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렇게 갔더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다음 기회로 미쁨으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

를 준 셈이 되었다(2:1-6).

20.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가슴이 따뜻한 목회자였다. 24절에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어떤 점이 드러나는가?

**목회자는 주판자가 아니라 돕는 자:** 성도를 위에 군림하려는 목회자가 적지 않다. 아니, 자칫하면 자연스럽게 군림하게 된다. 절대적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는 바울은 참으로 가슴이 따뜻한 목회자다.'

## 고린도후서 2장

1. 다시 근심으로 나아가다(1)? 다시는 가슴 아픈 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이 틀림없다(12:14, 13:1-2).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몹시 가슴이 아팠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방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금 방문하면 왜 가슴 아픈 방문이 되는 걸까?

**가서 책망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 책망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가슴 아픈 사람이 많다.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언제까지 버려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2. 2절은 말이 어렵다. 일부를 ( ) 속에 가두면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어느 부분을 가둘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너희 외에 없다(=3절)는 뜻이다. '나의'는 주격의 의미이다. 나를 기쁘게 해줄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뜻이다.

3.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일이 생겼다. 당장 뛰어가서 혼을 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눈물의 편지를 썼다(4):** 당장 뛰어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책망하고 싶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소위 '눈물의(준엄한) 편지'라고 불린다.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쓴 편지일 텐데 전해지지 않는다. 목회자의 마음을 오해하고 엉뚱한 말을 할 때 달려가서 해명하고 야단을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말없이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이 되기도 한다.

4.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실제로 바울에게 근심거리였지만 바울이 즉시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고린도의 성도들로 하여금 더 근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3):** 무슨 근심일까? 뛰어가지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사역에 바쁜 사도를 엉뚱한 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한 염려, 죄송일까? 그렇게 고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을까?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한 말씀을 무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5.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머리 아픈(플 때리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그러하지만 바울을 이런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3):** 실제로 근심하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몇몇 문제가 되는 성도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을 것이다. 별로 아픈 곳도 없는데 매일 '아이고 죽겠다'를 연발하는 사람과 자주 아픈 데도 자신은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실제 차이는 엄청나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4). 사랑이 진정한 해법이다.

6.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근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이 문제다. 가령, '내가 배고픈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럴 때 엄마는 정말 배가 고프지 않을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바울이 근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근심했다.

7. 책망하는 대신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마음이 몹시 아팠다. 젊은 날 교회를 박해할 때 분기탱천한 모습은 어디 가고,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다 흘리는가?

**바울이 본래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야단치면서 더 아파하는 사람 말이다.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는 매 맞는 자식보다 더 아프다. 아파하면서 자식을 때린다. 아버지의 마음을 지녔으니 책망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이 그렇게 아픈 것이다(4).

8.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야단을 맞아야 한다. 책망의 강도를 낮추느라고 바울이 삽입한 말은?

**어느 정도(5):**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인 것은 '정말 너희들이 너무했다'는 암시이다.

9. 교회의 시벌은 사회적 형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힘이 없다. 최고의 벌이란 것이 '출교'다. 사형에 해당하는 벌이 출교인데 요즘에는 별로 겁내는 사람도 없어 보인다. 교회의 징계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징계의 목적이 죽이는 데에 있지 않고 회개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징계를 하면서도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0.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저를 물리친 모양이다. 이제 사태가 다 수습이 되었으니 오히려 저를 용서하라고 한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마저 순종한다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9)

11. 사탄이 교회를 혼드는 꾀계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 사탄의 꾀계를 파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인가?

**서로 용서하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위험한 칼이나 마 찬가지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유대인들처럼 용서해야 이긴다.

12. 바울이 용서해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가령,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뿌리 채 흔들렸다고 생각해 보자(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무엇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가?

**바울의 의중:** 다른 죄가 아니라 사도권을 위협했다면(실제로 본서 대부분은 사도직에 관한 변증이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가 이미 그를 용서했으니(10,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너희도 용서해주라고 권하는 것이다.

13.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 왜 있을 수 없는 일인가? 2)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1)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와 새신자(13절의 저희)를 버려두고 떠났으니(=선교사가 복음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뿌리치고 선교지를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 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궁금해서 사역을 중지해야 할 정도였다. 기존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랬을까? 새신자와 기존신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근심을 한 것이다.

2) 고린도 교회의 일을 처리하려고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오지 않아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을까? 대노하여 고함을 지르며 펄펄 뛰기보다 이 한 마디가 잔잔하면서도 큰 책망이 되지 않을까?

14. 기독교인의 특권이라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신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뿐이다. 고린도 교회도 실제로는 많은 환란과 핍박을 받는 중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일깨우는 말씀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14)**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로마의 개선행진에 사용되던 단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가시켜 주시고'라고 의역을 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곱짜리 낀 것이다. 은혜다!

15. '믿는 신자는 이렇게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십계명 비슷한 것을 주어서 실천하게 해야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명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발하는 이 향기로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려고 애쓰지 않을까?

16. 어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냄새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까? 이런 비슷한 예가 있는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로마에 입성할 때 향불을 곳곳에서 피웠단다. 이 향기가 로마 군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이에게는 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다: 히브리어 '파카드'는 기본적인 뜻이 방문하다인데 '복을 주다'는 뜻과 '심판하다'는 뜻이 동시에 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사람에게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7. 지금이나 그 때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은 많다. 충신보다는 간신이 많고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은 것이 인간 세상의 본 모습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의 수가 많음(17):** 혼잡케 한다는 의미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부당이득을 노리는 것을 가리킨다. 전도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알팍한 의도를 숨겨 놓지 말아야 한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람 변하는 것은 하루아침이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 고린도후서 3장

1. 느닷없이 '자천해야 하느냐?' '천거서를 부쳐야 하느냐?'고 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2:5절의 근심하게 하는 자)가 바울이 천거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사도권 부인)** 그런 주장을 고린도 교회가 한 때 받아들였다가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임과 동시에 재확인 작업이다.

2.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믿는 사회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잘하지 못해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된다. 학교에서 숙직을 하다가 불이 나도 근무일지에 '화재발견'이라고 먼저 쓴 다음에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이란다. 기가 차는 노릇이지만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않고 서류만 따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반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이인가?

**그런 천거서(증명서, 추천서) 없이도 너무나 자명한 사이(1-2)** 굳이 추천서가 있다면 바로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신과 그 열매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는가?

3. 고린도후서의 상당히 많은 분량(1-7, 10-13장)이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이다. 자신이 사도권이 그렇게 중요한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세운 교회다. 사도권에 대한 부정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기에 바울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4.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가,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3)**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니 바울은 대필한 셈이다. '너희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 뭇으로 우리가 사도라는 것도 보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5.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으로 쓰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읽지?

행위로 나타내는 수밖에 없다.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권고다.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마음에 기록된 셈이다.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으려면 행동으로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입으로 읽어주는 것(?)은 안 된다.

6.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4)이란 무슨 확신인가?

**별다른 천거서가 없어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것에 대한 확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이다. 자신이 잘 났거나 능력 탓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적자들이 천거서를 들고 따져도 고린도의 성도들이나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다.

7. 5절의 두 '만족'은 동일한 단어이기는 하나 전자는 형용사이고 후자는 명사다. 기본적인 의미는 '충분(하다)'이다(6절도). 충분하다는 것은 자격이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러므로 둘 중의 하나는 '자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어느 것을 바꿀까?

**후자:** 많은 업적을 남기고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자격, 혹은 능력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빌 4:13). 아름다운 사람들!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나에게(고전 15:9)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딤후 1:12).

8.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장로나 담임목사의 임직을 허락받고 일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절차 없이 임직식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사도 바울은 임직식을 하거나 취임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도가 아닌가?

그런 형식(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의문(의례적인 글)'이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생명력이 없이 율법에만 매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임명된 자만이 영을 살리게 된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은 위험하다. 성령이 역사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9. 7-9절에서 모세와 암묵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 자신:**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감히 모세와 견주어서 더 우월하다고? 그것도 모세를 태양빛(=자신) 아래 쫓돌처럼 여긴다(10). 자신의 개인적인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이 그만큼 우월하다(=그리스도 복음의 우월성)는 확신이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겼다.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여야 한다.

10. 바울은 모세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말(7)을 하는가?

바울이 천거서도 없다고 비난하는 자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비난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옛 언약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6)이다.

11.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대비시키고 있는가(3, 6-11)?

**플비에 쓴 것 ↔ 심비에 쓴 것, (옛 언약) ↔ 새 언약, 의문(儀文) ↔ 영, 죽이는 것 ↔ 살리는 것, 정죄 ↔ 의, 영광 ↔ 더 큰 영광, 없어질 것 ↔ 길이 있을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대적자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이라는 변증이다.

12. 모세가 광채 나는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참고, 출 34:29-35)?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13):**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마는 그래도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볼 일이 아니다. 우쭐할 것도 없다. 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볼 일이다.

13.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에 매이는 것:**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수건을 벗는 비결이다(마 5:17). 왜냐하면 예수께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고 따르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14. 본문에는 몇 종류의 수건이 나오는가?

**3가지:** 모세가 쓴 수건, 율법을 읽으면서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는 자의 수건.

15.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다. 수건을 쓰고 보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읽으니 율법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주의 영은?

**자유하게 한다:** 무슨 자유인가?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이다(갈 4:24-31). 하나님과의 관계도 종의 영이 아닌 양자(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롬 8:15).

16.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는 자(15)와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자(18)를 대비시키며 논조를 마무리 짓는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율법에 얽매인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된 자에 대한 대조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대비시키는가?

천거서를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와 천거서도 없는 바울.

## 고린도후서 4장

1. 낙심할 이유는 충분한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 '이러하므로'는 낙심치 않는 이유가 앞장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새 언약의 일군으로 세워진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에게서 친히 사도로 세워진 바울은 이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을까? 평생토록 낙심이란 있을 수 없었다. 작심삼일?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2. 천거서가 없다고 비난한 대적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스스로 천거하노라:** 자명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숨길만한 부끄러운 일도 없고 궤환(간교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도 않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천거서 문제를 일단 매듭짓는 셈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한다. 하나님은 누가 천거하는가? 때로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때가 있다. 부모인 것은 스스로 증명되는 것이 옳지 유전자 감식이나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뭔가 부족한 상황이다.

3.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사도란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셈인가(3, 4)?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가리워진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데도 영똥한 소리를 하며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다(막 3:29). 바울의 사도됨을 끝내 거부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복음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귀신이 씌는 것:** 귀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4.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막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귀신이 우리를 덮으면 곤란하잖아?

귀신은 대단한 능력을 지녔지만 성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영향력을 미친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온 성도에게는 어쩔 수 없다. 그리스도가 태양이라면 이 세상 신은 구름이다. 구름이 아무리 용을 써도 태양을 다 가릴 수는 없다. 그러니 빨리, 제대로 믿는 것이 상책이다.

5.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아이콘) 아닌가(4)?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깨어진 형상의 조각일 뿐이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도는 회복되어야 할 존재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존귀하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표현이다.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존귀하다(롬 14:15, 고전 8:11)는 것이 더 정확하다.

6. 바울은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는 문제로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것은 어색하지 않은가?

**사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색하기 짝이 없으나 사도의 직분이 연합한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말이다:** 목사나 장로는? 당연히 섬기는 직분이다. 성도들에게 종노릇 해야 한다. 간혹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니 성도의 종이나고 하는 분도 더러 계시는 모양이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너희의 종'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으므로!

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빛을 비추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데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셨다. 언제 '빛이 비추라'고 하셨는가? 천지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창 1:3).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비친 빛(행 9:3)은 훨씬 더 강렬한 것이었다. 무지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게 해준 빛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제2의 창조 사역이다. 캄캄하던 곳에 한 줄기 희미한 빛이라도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데 가장 밝고 밝은 빛이 비친 셈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했다가(창 28:20)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것에 비교하면 되겠다.

8. 보석함에 보배가 들어 있으면 당연하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으면 잘못 담긴 것이다. 질그릇이 영롱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담겼다. 누구의 실수인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능력이나 장점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돼지우리에 진주가 떨어져 있다면 돼지가 흘린 것이 아니다. 돼지가 어디서 물어다 놓은 것도 아니다.

9.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지 8-9절을 요약해 보자?

**외양은 같으나 실상이 다르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같으나 견디는 힘이 다르다.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굴복당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쉽게 이긴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즈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는 뜻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군대가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를 가리킨다.

10. 그리스도인은 죽은 예수를 짊어지고 다니는 셈이다. 그 분이 왜 죽어야 했는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생명의 움이 돌는다(10, 11):** 예수께서 죽으심을 기억하며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자(죽음에 넘기운 자, 11)에게는 새 생명이 돌아난다.

11. 광패였다가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 그랬단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내가 본다.' 이와 흡사한 표현이 본문에 있다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김으로 결과적으로 너희가 산다는 말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다.

12.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한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14).

13. 믿으니까 하는 말인데(13)?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시 116 편을 다 읽어보아야겠다. 무슨 의미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일까?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고 그 구원을 인하여 감격을 누린다. 바로 그 상황이 바울 자신의 상황과 닮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다.

14. 어떤 교회의 할머니 방에 시 94:14-15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라는 구절이 붙어 있었다. 아무래도 '결실'까지는 곤란하겠다면 웃었다. 그보다 더 좋은 구절이 없을까?

16절) 결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5. 환난을 잘 참고 견뎌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환난의 크기보다는 장차 받을 복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1:8) 그러나 장차 받을 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 고린도후서 5장

1. 우리에게는 두 채의 집이 있다. 땅에 한 채, 하늘에 한 채다. 땅에 있는 집(장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쉽게 무너지는 것(=장막), 손으로 지은 것, 일시적인 것:** 장막은 줄 몇 개 풀고 지지대 몇 개만 빼면 순식간에 넘어진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영원한 것이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다. 0과 ∞의 차이다. 사람의 가치가 육체에 있다면 너무나 허무하다. 의사가 보기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 없다. 인격이 제외된 육체는 그냥 살덩이일 뿐이다. 신혼여행 때 짝은 필름을 현상소에 맡겼는데 분실되면 같은 크기의 새 필름으로 교환해준다. 그게 말이 되는가? 필름이라고 같은 필름이 아니듯이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다. 책이나 옷이 무게로 값을 매겨지게 됐다면 얼마나 허무한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므로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땅의 집을 버리고서라도 하늘의 집을 사모해야 한다.

2. 육체는 언젠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벧후 1:13-14)이 아닌가? 그런데 왜 벗어버리지 않고 덧입는다고 하는가(2)?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눅 24:36-43)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자.

부활하신 후에도 분명히 육체가 있었다. 그럼에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장래에 성도는 더 나은 육체를 입는 것이 틀림없다! 육체를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말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랴?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그 날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지만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한다.

3. 어떤 목사님은 주무실 때에도 정장을 하고 주무셨단다.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시든지 바로 마중갈 수 있도록 그랬단다. 속옷 바람으로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옷은 정장이나 속옷이 아니다:** 그런 옷은 사람에게나 차려야 할 예의지 하나님 앞에서는 입으나 입지 않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가 단장해야 할 옷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2).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벗은 몸이다(3). 초대를 받았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났다(마 22:12-13). 그게 무슨 옷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설명도 필요 없었던 모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얀 옷!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4.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면 어떻게 되나?

**영원히 산다:** '생명이 죽을 것에게 삼켜지면 죽는 것'과 반대현상인데 우리의 상상이나 체험을 뛰어넘는 일이라서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영원한 것인데 이것을 덧입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생명은 자신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생명체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셈이다.

5.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많은 것을 제약하고 있다. 조금 추워도 안 되고, 조금 배고파도 안 되고, 조금만 피곤해도 못 견딘다. 이렇게 거주장소인 육체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수밖에 없다(2, 4)**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여러 가지 제약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저항 없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순응한다면 짐승이다.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릴 수 없기에 탄식하며 육체의 요구를 길들여 가면서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해야 한다.

6. 육체에 거한다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도 담대해야(6)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살아서 확인할 수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7):**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믿음뿐이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일이다. 참으로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믿는 성도에게는 참으로 쉬운 일이지만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어려운 방법이다.

7. 원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은 범죄한 이후 육체 속에 갇혀버렸다. 이 육체를 입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몸에 거하는 것은 주와 따로 거하는 것이다(6). 육체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8)?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육체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를 훈련시켜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다(9, 빌 1:23).

8. 살아야 할 이유도 있고 죽으면 죽는 대로 유익이 있으니 어떡하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9)** 이것이 생애 최대의 목표가 된 바울의 삶을 보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10).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 이 심판대는 상을 주시는 시상식장이었던 셈이다.

9. 심판대 앞에 서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을 것(10)이란 것이 행함이 중요하다는 말 아닌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으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상급이 다르다(고전 3:10-15)고 말한 것을 참고하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하였다.

10.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11). 그들이 자신을 알아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기(=재대로 답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12)이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거꾸로 바울을 사랑할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다. 바울이 미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라는 셈이다(13).

11.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미친 사람처럼 험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14).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14):**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산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은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다(15). 강압적인 규제나 험신은 기쁨이 없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사랑의 강권은 자발적이며, 기쁨이 넘친다. 바울의 기쁨에 넘친 헌신적인 삶이 바로 이 사랑의 강권 때문이었다.

12. 이제부터(16)? 언제를 가리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깨달은 때(15)부터:** 그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조차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실망하고 흩어졌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달은 이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게 되었다. 예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깨우침인가!

13. 예수께서 고향에 들렀을 때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배척했다(막 6:3).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예수를 육체대로만 안 것:**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진짜 인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를 입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 분이 진정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고백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1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셔서(21)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19).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

사탄의 자식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강화도령이라고 불렀던 철종처럼, 시골 아이가 갑자기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다.

15. 친구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서먹서먹해졌다면 화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임금님과 신하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갈라졌다면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시 화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친구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사람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지만 임금님과 신하 사이에서는 방법이나 중재자가 많지 않다. 화목케 하려는 신하의 노력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중재자가 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재자가 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한다(18).

16.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엄청난 신분추락이다. 4성 장군을 이등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말이다. 엄청난 추락이요, 엄청난 상승이다.

## 고린도후서 6장

1.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다. 그것이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직책의 소중함과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역설함.

2.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준 선물도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려서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선물)를 헛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더구나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3. '지금에 은혜 받을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인가?

**더 이상 은혜가 없을 수도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할 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결단하라는 말이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자. 오라고 부를 때 회개하고 방주로 와야지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이 없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문이 닫힌 후에는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았다(마 25:10-12).

4.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임을 받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애쓰는가(3-10)?

말은 바 직책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강조함으로.

5.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역울함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역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했다. 모든 아픔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직책이 휘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3):** 직책이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한다. 개인적인 역울함이야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나를 가리켜 사도가 아니라고? 복음을 위하여 받은 수난이 자신의 사도권이 참되다는 증거다.

6. 대통령이 산하기관을 순시할 때 따라나선 대통령의 운전기사는 산하 기관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할까?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옳을 것 같은데 사실은 최악의 고통을 스스로 겪었다:** 권력자 주변 사람들의 한 마디는 영향력이 참으로 크다. 그래서 단순히 운전기사라고 해서 무시하면 큰 일이 난다. 그래서 직사대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권력자의 주변 인물이 아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도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곳발 있는 부대장을 모셔야 자신도 곳발이 좀 쉰 법인데...?

7. 바울은 3:1에서 자천(自薦)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자천하는가(4)?

3:1의 자천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내세울 생각이 없다는 말이고 여기서 자천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었다는 의미이므로 같은 맥락이다.

8. 4-10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강 1)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처한 환경(상황), 2)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구, 3)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분류해 보자.

1) **많이 견디어야 하는 상황:** 환난과 궁핍과 곤난(=심적인 부담)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외부에서 가해지는 육체적인 괴로움)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스스로 짊어진 육체의 짐, 교회에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복음 전한 것).

2) **깨끗함(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과 지식과 오래 참음(=아마도 교회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병기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말미암으며**

3)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외부에서 보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9. 하나되어야 할 자와 하나 되고 분리되어야 할 자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되어야 할 자는 누구이며, 분리되어야 할 자는 누구인가?

하나가 되어야 할 자는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이다(11-13). 분리되어야 할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14-18).

10.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사이가 벌어진 것이 틀림없다. 누구 탓인가? 누가 먼저 풀어야 하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진 탓이다. 그럼에도 사도가 먼저(13절,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혔다. 어른이 먼저 풀어야지! 아니 먼저 푸는 사람이 어른이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11)는 것은 '뱀쳐서 말 않고 있는 것과 반대 개념' 아닐까? 어떤 역본은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다'고 의역을 했다.

11.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란 말은 너희가 좁아졌다는 말인가, 우리가 좁아졌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12절은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하는 것이다.

12. 느닷없이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왜 튀어나왔을까?

**믿음에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바울이 이토록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적지 않은 열매를 얻었는데 이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마저 헛수고가 될 수는 없다는 안타까움 탓이다.

13. 우리나라의 멩에는 소 한 마리가 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멩에는 두 마리가 매는 것이다(신 22:10). 두 마리의 힘이 어울리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멩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사귀지 말라는 말인가? 고전 5:9-10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믿지 않는 자와 밀접한 관계(친밀한 교제, 동업, 결혼)를 맺음으로 믿음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14. 성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러니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아예 어두움을 떠나 빛이 있는 곳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17절에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라는 말씀은 사 52:11의 인용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떠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다. 무조건 속세를 떠나라거나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갈라서라는 말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 밑에서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5. 성도가 구별되어야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본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18):** 애비 없는 자식처럼 함부로 살아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 7:1절을 분리시키지 말고 18절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

## 고린도후서 7장

1. 이 약속(1)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깨끗케 해야 하는가?  
**6:14-18,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 애비 없는 자식처럼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면 훌륭한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레 19: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절은 차라리 1장의 말미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아 보인다.
2.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신약의 성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에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성도의 경건한 삶의 바탕이 된다. 아버지와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경외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3.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2)는 말은 6장의 어느 말과 맥이 닿아 있는가?  
**6:13절의 마음을 넓히라!:** 같은 말이라고 보아야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도 될 만큼 사이가 회복된 모양이다. 엄청난 마음고생을 겪은 다음에 하는 말이다.
4.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는 말을 하는 것은 찢리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바울을 비난한 거짓 사도들이 한 말을 부정하는 것이다.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절한(?) 자기변명을 해야 했다. 작금의 한국교회에는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갖 약점을 잡고 목사나 장로를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한단다. 어떤 적대자들에게도 약점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5.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따진다면 이것은 정죄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는가(2)?  
**하나되기 위함이다(3):**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그러는 것이다. 바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즉 살 길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동조한 성도들을 정죄할 마음이 전혀 없다. 전에도 말했단다(6:11-13, 관주를 참고할 것). 교회의 권징은 바로 이런 정신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6. '말이 담대하다'는 것은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역본들은 '신뢰하다'로 번역을 하였을까?  
 믿지 못하면 모든 사실을 다 털어 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역을 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일시적으로나마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믿었고, 결국은 그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하고(5-7)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감사하였다.
7. 바울이 마게도냐에 간 것이 한 두번이 아닌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냈던 디도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어서 그를 만나려고 간 일(2:12-13).
8.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육체가 편하겠는가? 그렇다고 해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위대한 사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닌가(5)?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가리키는 말이다:** 선교사라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외부의 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다.
9.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과 어떻게 다른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위로(5-7):** 일반적으로 쓰이는 만사형통이란 개념은 외부의 변화에 초점이 있으나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의 내부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복음송 가사를 음미해 보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10. 디도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받은 위로, 즉 사모함과 애통합과 바울을 위한 열심 있는 것이다. 염려하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느라고 발잡을 자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알 것이다.
11. 아마도 바울은 몹시 강경한 톤으로 편지를 썼던 모양이다. 소위 '눈물의 편지'(고후 2:4)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어지는 이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놓고 후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할까 싶어서:** 마음 약한 선생님이(부모가) 독한 마음을 먹고 매를 들고나면 자신이 더 아프다. 아이는 맞은 사실도 다 잊어버렸지만 선생님은(부모는)

있지 못한다. 사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랬는데 그 결과가 아주 좋아져 버렸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다.

12.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잠시나마 근심하게 한 것은 누구인가? 당연히 바울?

바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9). 교회를 염려한 것은 바울이었고 편지를 쓴 것도 바울이지만 이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줄 아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능력이다.

13.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란다. 치명적인 해를 주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한단다. 근심도 그렇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10).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결국은 복이다. 라합이나 출애굽 당시의 산파들처럼!

14.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한 결과로 나타난 가지 현상(11)을 다음의 예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예) 간절하게 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고치려는 열심.

**변명하게 함:**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

**분하게 함:** 적대자들에게 대한 의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속지 않았을 것인데...

**두렵게 함:** 바울을 다시 볼 면목이 없거나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모하게 함:** 사도와 친밀하게 지냈던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열심있게 함:** 회개하고 성도답게 살려는 노력, 혹은 바울의 수고를 도우려는 마음

**벌함:** 바울을 비방한 자들을 벌하는 것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는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5.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이유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사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12):** 잠시 정신이 없어서 엉뚱한 짓을 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는 뜻이다.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대적자와 싸울 때 적극적으로 바울의 편을 들지 않았던 고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교회를 핍박하던 패기찬 모습은 어디 가고?

16. 디도를 만난 바울의 기쁨은 두 가지다. 고린도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보여준 태도와 디도의 기쁨이다.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더욱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

디도에게 준엄한 편지를 쥐서 보낼 때 디도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다(136 참조).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음이 몹시 상해서 돌아온 교회에 자기가 간다고 별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걱정스런 마음으로 갔다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안심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17.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말을 했는가?

**자랑(14):** 심하게 책망하는 글을 써 보내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다.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믿을 만하다는 식으로! 막상 디도가 고린도에서 박대를 받고 쫓겨났다면 바울의 체면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부모 같은 목회자의 자세다.

18. 디도는 바울의 심부름으로 고린도에 가긴 갔지만 가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바울마저 실망시킨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막상 도착했더니?

**두려워하고 뺨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였다(15):** 고린도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디도를 바울의 대리인으로 영접한 것이다. 디도가 많이 놀랐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심정 = 애정)

19.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지 안절부절 하고 있었던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다. 소심하게 걱정하던 바울이 드디어 범사에 담대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걱정할 필요 없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 고린도후서 8장

1.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참고로 고린도는 아덴과 함께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고 그 위에 마게도냐가 있다. 이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교회가 있었다.

**풍성한 연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많은 환란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수 믿고 이런 환란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결과가 풍성한 헌금이었다. 정말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2. 헌금을 왜 '은혜'라고 돌려 표현하는가(1, 4, 6, 7)?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일부를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금이나 뇌물 처럼 내는 헌금은 은혜가 아니다.

3. 마게도냐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연보(=단순함, 관대함)를 풍성하게 하였는가?

많은 환란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결과가 풍성한 연보였다.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오늘 우리의 헌금 자세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참고로, 이 환란은 로마 황제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끈질긴 것이었을 터이지만 말씀대로 살려면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4. 연보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3),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5):**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연보를 했다는 자랑이다. 헌금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대신에 드리는 대속물이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을 주께도 드리고(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의미함), 사도들에게도 드렸다. 단, 이 연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특별헌금에 해당하는 셈이다. 항상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교지를 나누어 말할 때(갈 2:7-9)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에 요청한 것이다(갈 2:10).

5. '은혜'는 무엇이며 '성도 섬기는 일'은 무엇인가?

**아마도 같은 것, 즉 연보:** 연보를 하게 해달라고 구했다니? 제대로 배운 성도들이었다! 번역을 '성도를 섬기는 은혜와 교제(=참여제)를 간절히 구하니'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구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통한 성도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6. 마게도냐 성도들은 헌금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4). 그냥 하면 되지 구하고 뭘 구해? 헌금도 허락을 받고 하나?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하는 영광을 내게도 주세요!'라는 식으로.

7.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방법이나 권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마게도냐 성도들의 예, 믿음의 풍성함을 칭찬(7), 강제가 아닌 부탁(8, 10), 예수의 모범을 따르라 권함(9),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아(10)? 평균계 하시는 하나님의 뜻(13-15)

8. 사도 바울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고했는데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그대로 따라하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무슨 차이 때문인가?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도와야 한다는 명분이 뚜렷했다. 반면에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명분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많은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인식(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이 퍼져 있다. 이런 때는 오히려 자제하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오늘날 헌금의 대부분은 개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된다. 여기서 바울이 헌금을 요청하는 중요한 이유는 평균계 함이다(13). 전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성도들이 동의할 수 있을 때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9.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헌금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라.

10.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7)을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말이다. 이고 완전히 강제가 아닌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강제다! 이런 정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이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8). 강제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11.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란?

**위에서 예를 들었던 마게도냐 성도들의 풍성한 헌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잣대가 된 셈이다. 비슷

하계라도 해야 너희도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거 협박 아냐?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12. 강요하다시피 헌금을 하라고 해도 그것이 전혀 강요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부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9):**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돕는 정도는 오히려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도 잘 하는 일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는 것이다.

13. 연보를 하라고 당연히 명할 수 있는 일임에도 '뜻만 보인 것'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정당한 명령이라도 반발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다. 자발적으로 행하기를 바란다면 이런 식의 정중한 발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기서 유익이 헌금에 대한 유익인지 자신의 이런 발언에 대한 유익인지는 분명치 않다. 11절 말미의 '있는 대로 하라'는 말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이다.

14. 12절에 따르면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마음이 먼저:** 마음에 없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15.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 이 말이 법적으로나 생존경쟁 차원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신앙공동체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평균계 함(13-14):**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인간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면이 너무나 많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다. 아예 일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평균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6. 누구는 남아돌고 누구는 모자라는 일이 성도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일 것을 무슨 근거로 설명하는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15):** 출 16:13-36의 내용을 근거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는 광야생활에서는 내일 먹을 것을 따로 저축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의 만남은 썩어 냄새가 났다. 우리말에 '아끼다 동된다'는 말이 딱이다. 오늘날의 삶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릴 필요는 있다.

17.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16-17):**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달려 보낸 한 형제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18. 헌금 문제를 조심해서 다루도록 몇 사람을 더 추가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가?

**두 사람(18, 22):** 한 사람은 저와 함께 한 형제고, 또 한 사람은 우리의 한 형제라고 하는데 누군지 알 수는 없다. 돈 문제는 한 사람이 다루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다루게 하는 것이 옳다. 돈을 편안하게 보아서 안 된다. 워낙 민감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후일에 모금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각 교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직접 헌금을 가지고 동행하게 했으므로 일행이 무척 많았다(행 20:4).

19. 디도와 함께 간 형제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말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한다. 요즈음 말로 쉽게 설명하면?

**여러 교회가 추천한 회계사:** 동시에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기도 하다. 전도를 잘 해서 명성을 떨친 사람이라는 말이다. 전도를 잘 하는 회계사? 교회 일이라고 해서 성경만 잘 알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다.

20. 누가 봐도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것보다 더 나은 태도를 바울에게서 배운다면?

**선한 일에 조심하는 것(21):**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성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연한 일이지만 동의를 구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손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대부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돈은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돈이 많이 있으면 휘방을 당하기 쉽다.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을 위험도 있지만 사리사욕을 위한다는 비난을 받기 일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에 조심하려 했다.

21. 사람들은 흔히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할 정도면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지 않을까?

**바울은 하나님 앞은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했다(21):**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사람들에게도 거리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인도, 혹은 전도해야 할 입장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22. 바울이 디도 일행을 소개하는 말을 보면 누구를 더 높이고 있는가(23)?

**외견상으로 형제들:** 디도는 나의 동무,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팔려 보낸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한다. 디도는 바울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다른 형제들은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소개하고 있으니 이들이 더 중요한 사람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이 각 교회의 대표라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반면에 디도는 바울의 대리인이라는 뜻이다.

23. 고린도 교회는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을 세워야 한다. 누구의 체면을 세우라고 권하는가?

**고린도 교회와 우리:** '넋회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많이 자랑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한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헌금을 하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를 감당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까지 들먹여도 될까?

## 고린도후서 9장

### 1.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연보:** 교회의 모든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어야 한다. 성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쓸 필요가 없다(1)고 하면서 왜 자꾸 쓰는가(2-15)?

쓰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칭찬이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에 비하면 먼저, 자원해서 시작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렇게 칭찬하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말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을 달래는 방법의 하나로 '새삼스럽게 공부하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셈이다.

### 3. 성도를 섬기는 일을 일 년 전부터 예비하였다고 하는 아가야(지방)가 어디인가?

**고린도 교회가 수도로 있던 지방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셈이다. 아덴(아테네)도 이 지방 소속이다.

### 4.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마게도냐인들을 격동케 했단다. 교회 일에도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가?

**그런 모양이다:** 하나님만 보고 감격해서 헌신해야 옳은데 사람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고 따르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모양이다. 다른 형제의 열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한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강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한 분을 찾아가셔서 큰 절을 올렸단다. 하나님께 앞장서서 헌신한 분을 인관적으로도 잊을 수 없더라.

### 5.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자랑했더니 마게도냐인들이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헌신을 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한 만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함께 우사(=망신)를 당하는 거지(4)** 그래서 이 형제들(8:18, 22)을 미리 보낸 것이다. 비교적 잘 산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겨우 이 모양이냐?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뢰성도 크게 떨어진다.

### 6. 어떤 이에게는 연보의 액수가 중요하다. 바울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억지인가 아닌가 = 자원하는 것:** 미리 준비해서 자원하여 드리라는 것이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연보답지 못하다(5, 7).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꼴이 된다. 자원해서, 스스로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해야 한다. 8:2에 사용된 연보는 '단순, 소박'이란 뜻인데 반해 여기서는 '복'이란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난외주 참조).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연보는 복이다.

### 7.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6)은 결국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 아닌가?

**준비를 잘 하라는 말이다:** 준비를 잘 하면 결국 액수가 많아지겠지만 핵심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준비를 잘 함으로 자원하는(=즐거내는) 헌금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 8.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다. 8절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관계된 단어를 다 찾아보자.

**'모든'이 네 번, '넘치게' 두 번, '넉넉하게', '항상'이 한 번씩:** 엄청나게 강조된 셈이다.

### 9. 자원하여,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8):**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의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9).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베푸는 자가 결국 자신이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다(열매를 제공하고 씨앗을 퍼뜨리는 것, 씨앗이 썩어서 싹이 트는 것). 사방 80리 안에 굶는 자가 없도록 했던 경주 최부자는 농민의 반란이 일어나도 그 가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 10. 11절은 말이 너무 복잡하게 꼬인 셈이다. 그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보자.

**고린도 교인들:** 너그럽게(후하게) 연보를 한다.

**예루살렘의 성도들:**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을 부요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

### 11. 연보를 가리켜 '봉사의 직무'라고 한다(12). 출 30:16, 사 61:6, 행 1:25, 21:19, 롬 15:27... 이런 구절들을 참고해서 봉사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총칭:** 연보가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이다.

12. 무엇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이 직무 끝 후한 연보(13):**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마련이므로 헌금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다. 웨슬리가 그랬다면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13.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부탁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14절에 찾는다면?

**간구하며 사모하게 함:**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사모한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어야 했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되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고린도후서 10장

1. 1-2절을 요약하면 '나, 바울이 심하게 너희를 꾸짖을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대면하면 겸비(겸손, 비굴)한 바울이 과연 심하게 책망할 수 있을까? 10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바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이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의 말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담대하다고 하는 나 바울은...'이라고 번역하였다. 정말 그러한지 시험해 보겠느냐는 협박(?)성 발언이다. 나로 하여금 이런 태도로 여러분들을 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2. 바울은 본래 그렇게 온유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화를 내면 무섭다.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모습을 생각해 보라. 화를 낼 때가 되면 낸다(=담대히 대하려는 것, 2절)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험한 말을 하는 셈인가?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2)**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세상적인 이기심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팔고 다니는 인간이라고 악의적인 말을 퍼뜨리는 대적자들을 가리킨다.

3.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 선 것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 가는 것을 보아도 바울은 절대로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겸비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1) 대했기 때문이다.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질을 다 죽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적대자들이 오해한 모양인데 고린도 성도들도 그런 주장에 동조해버린 모양이다.

4.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힘을 쓰지 않고 머리를 써서 간단하게 이기는 것을 보면 허무하다. 게임이 너무 싱겁게 끝나기 때문이다. 육체를 가진 자가 육체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이기려면 무슨 무기를 동원해야 할까?

**영력:**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4)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깨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무기라는 뜻이다. '육체의 힘'이란 인간적인 동기로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온유와 관용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힘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가장 강력한 무기다.

5.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싸워야 하는 상대는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모든 이론, 지식, 교만, 생각 등등: 인간의 교만함(=높아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전부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다. 반면에 대적자들은?

6.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하게 바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사도의 권위로 혼을 내서, 빨리 해결하지 않고 뭘 기다리나?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하게 바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더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벌할 것이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모든 일이 회복되고 끝난 것 아니던가? 일부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7.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자들의 외모에 현혹되어(5:12)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외모에 현혹되었을지 다음 구절들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3:1, 11:6, 11:20-21, 12:1-7)

**3:1:** 천거서, 11:6: 화려한 말씀씨, 11:20-21: 담대한 태도, 12:1-7: 환상과 신비 체험: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내용물에 문제가 전혀 없을 때의 얘기가. 보기만 좋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섹소, 방부제, 화학조미료, 각종 첨가제로 무장한 음식이 보기 좋다고 자기 집의 수수하지만 조심스럽게 장만한 음식을 무시한다면? 조금은 권위 있는 듯 강압적이어야 하고 큰 소리(뽕)를 쳐야 하고 허세를 부려야 설교답다고 여기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8. 만약 어떤 사람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자기야 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아마도 사도의 자격에 관한 의미)라고 한다면 그 말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는가(7)?

결과적으로 자기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을까? 이단? 팔통 유대주의자들?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한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겠다. 문제는 어떠한 말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잘 가르쳐놓는 수밖에 없었겠다.

9. 바울이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다. 여기서는 무슨 사랑을 얼마나 하려고 '지나치게 사랑하여도'라고 하는 걸까? 무엇에 관한 사랑일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용 자랑(아마도 11-12장)** 아무리 많은 자랑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움으로 결과적으로 '너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10.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말로만 공갈을 치지 막상 대하면 꿈쩍도 못한다. 편지만 힘이 있지 사실은 별 볼일 없으니 걱정마라'는 말을 했던 모양이다(10). 그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9, 11)?

**9절:** 편지로만 놀라게 한다고 생각지 말라,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

**11절:** 편지로 하는 말이나 만나서 하는 말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11. 바울은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그들도 자랑을 하고 바울도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랑을 했지만 바울은 그런 기준을 오래 전에 버렸다(고전 2:1-5).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랑한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 하는 자랑이다(12:1, 무익하나마, 부득불).

12. 바울도 자랑하기는 하는데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13-16)?

**분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분량', '한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자랑의 정도와 선교의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 같다. 자랑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고, 선교를 하더라도 정해진 영역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13. 바울의 선교영역은 이방인이다(행 9:15, 갈 2:9). 아마도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은 자들은 이 영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유대인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선교영역의) 한계를 넘어서 남의 구역에 들어와서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분량 이상의 짓을 하는 셈이다.

14. 바울이 더 위대한 사도가 되어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이(한계가) 더 넓어져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더함에 따라(15):**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는 말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함에 따라 우리의 한계도 더하여진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로마와 서바나를 가리키는 말이며(행 19:21, 롬 15:22-24)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다.

15. 자랑하고 싶더라도 한계를 지키면서 하라는 것이다. 그 한계는 무엇인가?

**주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성도의 자랑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등이다. 그렇게 자랑함으로 결국은 주께 칭찬을 받게 된다.

## 고린도후서 11장

1.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려는 어리석은 짓이란 무엇인가? 왜 그러는가?

**자랑하는 것(11-12장):**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3:1, 5:12, 10:12) 자랑하려면 쉽지 않다. 쓸데 없이 자랑하는 놈들 때문에, 그런 인간을 참 사도인줄 믿고 따라가는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바울도 어쩔 수가 없다(12:11).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이 통한다. 이렇게라도 가르쳐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눈높이 교육이다.

2. 하나님의 열심이란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뜻이다(왕하 19:31, 사 9:7, 37:32). 이 말은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능력도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바울에게 휘방꾼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중매를 서는데(원어상 의미는 정혼한 사이) 처녀를 유혹하는 못된 인간이 있는 것과 같다. 단순히 열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

**두들겨 잡아야지, 아니면 처녀를 단단히 단속해야지:** 도무지 필요없다면 자랑마저 동원해서 엄청난게 책망을 한다. 열심이란 말은 감정이 배제된 표현 쪽에 가까운데, 바울은 권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수가 있는가?' 말이다. 열심에 이런 분노가 담기면 시기, 질투가 된다. 열심의 원어상 의미는 질투라는 의미다(NIV 참고).

3. 고린도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것(3, 장 3:13):**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또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엄청난 책망이다. 뱀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듯, 거짓선지자들이 바울의 수고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셈이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3).

4. '이와가 누구야? 하와를 가리키는 말 같은데?

히브리어에서 바로 음역한 것이 '하와',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음역한 것이 '이와(=이브)'다(딤펴전 2:13).

5.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배우는 것이 욕이다. 좋은 말은 용을 써서 가르쳐도 잘 못 배우는데 욕은 왜 그렇게 잘 배울까? 우리 본성이 그 쪽에 더 가까워서 그런가? 바울이 애써 가르친 것보다 고린도 성도들이 더 쉽게 받아들인 것은 무엇인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4):**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다른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멀쩡한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이 먹혀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예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교회를 미혹하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정도 다른 것이 약간의 차이가 아니다. 이단(異端=끝이 다르다는 말)이란 뜻이다.

6. 자랑하지 않으려던 바울이 드디어 자랑하려고 일어섰다(5). 이제부터 엄청난 자랑을 퍼붓는다. 이럴 때 경상도 사람들이 잘 쓰는 서두가 있는데?

**가마이 있으면 가마이때고 줄 아느냐?(=가만히 있으면 가마이때기인 줄 아느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경상도 사람도 이 정도 되면 말이 많아진다.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던 11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시골 교회 목사가 "내가 이런 시골에 있는 것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서울의 유명한 목사보다 못한 줄 아느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설령, 그 말이 맞다 해도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은 몹시 마음이 아프다.

7. 사도 바울이 말에 졸하다고? 그렇지 않다고 할 만한 다음 장면들을 참고해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행 13:15-41, 14:15-17, 17:22-31, 22:1-21, 24:10-21, 26:2-29).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데는 바울보다 나았을 것이며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화려한 그들을 비꼬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설교자들은 온갖 재미난 예화와 위인들의 말로 설교를 화려하게 꾸며 속빈강정을 만들기도 한다. 아마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표현 아닐까? 더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친히 꺾어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하긴, 눈에 뭐가 씩면 뻥히 보고도 모른다.

8. 성도들을 위한 어떤 유명한 세미나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케 했기 때문이란단다. 무료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다른 교회에서 값을 받았기 때문:**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잘 해준 것도 죄냐?'는 말이다. 너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취한 셈이다(8). 말하자면 나는 너희를 키우기 위해서 못할 짓을 했다!

9.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보자.

**전도하기 위해서 애매한 소리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는 것, 목회자가 정당한 사례를 요청하지 않는 것:** 바보 소리 듣기 십상이지만 바울도 이렇게 바보짓을 했으니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정상 아닐까? 목표가 자신의 안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니 자신의 권리를 챙기려는 마음이 없을 수밖에! 헬라 사회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그래서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단다. 가격이 싸면 질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10. 자랑을 하면서 '이 자랑을 말릴 자가 있으면 말려 보라'고(=10) 하면 얼마나 얄미울까? 바울은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얄미울 정도로 당당하게 자랑을 하고 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11) 하는 자랑이다:** 이렇게 자랑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결국은 성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러울 일이 없다. 나의 이 자랑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11. 바울은 자신이 하는 것을 또 하겠다고. 그러면 기회를 찾는 자들의 기회가 끊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12). 뭘 계속 하겠다고는 말이며 그러면 대적자들의 어떤 기회가 끊어진다는 말인가?

사례 받지 않는 일을 계속하겠다고는 말이다. 그러면 그런 사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 더 당당하게 사례 받을 기회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사례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12. 바울은 대적자들을 '거짓 사도, 궤환의 역군,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말한다. 너무 심한 말 아닌가?

바울 개인의 원수가 아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다.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돈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이나 강도에 비하면 영원한 생명을 훔쳐가는 자들이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3. 사기꾼이 오히려 더 말쑥한 법이다. 간첩이나 도둑이 표시를 내지 않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도 티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누구에게서 배운 수법인가?

**사단에게서(14)** 사단이 이런 짓을 처음 행한 것이 아마도 하와를 유혹하던 때 아닐까? 현재는 뱀이 가장 징그러운 짐승이겠지만 그 당시의 하와에게는 가장 지혜로운(=간교한) 동물이었다. 실상은 사단이었지만.

14.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하더니(1)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16)고 한다.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나?

**자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자랑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어렵게 말을 꺼내려고 버리는 상태다. 교회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내키지는 않는 일이고... 그런 아픔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15.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한다. 왜?

어리석은 짓(=자랑)을 하겠다고는 뜻이다(16, 18). 나를 어리석다고 그래라, 그래야 나도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지 않느냐?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랑대결을 벌인다. 저 놈들이 저러니 한번 해 보자는 것이다. 목사가 자신의 수고를 일일이 알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다. 만날 놓고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놓고 있어도 노는 것이 아니다'고 믿어주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긴 노는 목사도 있고 있더라.

16.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이유를 17-18에서 찾아보자.

**주를 따름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하며 변명하지 않는 일에 익숙한 바울이 버린 지 오래된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다시 끄집어 내야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이 들었던 모양이다. (한글 개역)성경에 유일하게 사용된 말줄임표를 참고하자(고전 9:15).

17.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일(19)이 어떤 일일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칭찬일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게 무슨 지혜냐는 비아냥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한 모양인데 그것을 은근하게 책망하는 것이다. 너희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바보짓을 하게 된 것이다.

18.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치는데 어떻게 응답하는 수가 있을까(20)?

**잡아먹히거나 뺨을 맞고 있는 것(교인들 앞에 권위를 내세우며 교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19절의 속 뜻)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은 짓을 하느냐? 여름 수련회 뒷풀이에서 어떤 분이 바다에서 다른 분을 지능적으로 물을 먹였다. 바닷물을 거꾸 마신 사람은 자기를 괴져주는 줄 알고 물 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다. 모르니까 당하면서도 감사하더라!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는 자들은 자신이 잡아먹히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감사하며 끌려간다. 거짓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면서 정말로 관대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가득한 바울에게는 완고하게 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9. 21절을 의역한 다른 번역을 참고하면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다는 말인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행한 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치는 일(20).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상대로 담대하게 나서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짓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종처럼 성도를 섬기는 행위를 '약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거짓 사도임을 밝히는 셈이다. 오늘 날에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목사들이 많은데...?

20. 바울은 정말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러면 자신도 용기를 좀 내 보겠단다. 그렇게 힘들게 용기를 내서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 자랑(22-12:13):** 이런 자랑을 해가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 받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도 사도 바울의 헌신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알게 된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 될까 싶어서 간증을 꺼리는 신실한 분들도 적지 않다. 자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간증을 하기는 해야 한다. 정말 조심, 조심하면서 자랑도 좀 해야 하는 모양이다. 아휴, 어려워!

21. 드디어 바울도 본격적으로 자랑을 시작한다. 맨 먼저 자랑한 내용은 자신의 혈통에 관한 것이다. 히브리인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다. 이게 제일 큰 자랑거리인가?

**대적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시민권자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바울의 혈통이나 국적 문제를 건드렸을 수도 있다. 그야말로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라는 뜻이다.

22.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23)?

**바울:** 우리말로는 주어가 분명치 않지만 원어상으로는 1인칭 단수, 즉 '나' 다. 자신이 자랑하는 말, 즉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하는 말'로 여긴다는 뜻이다.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지녔는지 잘 보여준다.

23. 자랑거리가 그렇게 없나? 왜 이렇게 고생한 것만 자랑하는가(23-27)?

개인적인 이익을 누리자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거짓 사도라면 이런 생고생을 하겠느냐?

24.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는데 왜 하필이면 39대를 때렸을까? 신 25:3을 참고해서 생각해보자. 한 대 봐준 건가?

혹시 잘못 해야려 본의 아니게 40대를 넘길 것을 염려해서(만약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런 것이지 절대로 죄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다.

25.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는 것과 세 번 태장으로 맞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세 번 태장:** 사십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의 형벌이고 태장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금지된 로마의 형벌이다. 죽을 수도 있는 잔혹한 형벌이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이런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불법적인 처사를 당하기도 했다는 말이다.

26. 바울이 들에 맞은 기록은 행 14:19에 있다. 죽은 줄로 알고 갖다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세 번 파선한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

**없다:** 행 27장의 파선 기록은 지금보다 훨씬 후의 일이므로 여기 기록과는 상관이 없다. 이로 보곤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 많은 고난을 다 견디었음에 틀림없다. 말하지 않은 수고가 더 많지 않았겠는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여!

27. 복음을 위해서 머나먼 나그네 길을 걷는 바울에게 위험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험한 요소들이 대조를 이루어 나타난다(26). 다음 구절들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생각해 보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강도는 주로 산속에 있으니 강과 산이 대조를 이루는 셈이고, 시내는 작은 강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도시를 뜻하는 말이다. 도무지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표현이다.

28. '춥고 배고프다'는 우리말은 가장 불쌍한 경우를 가리킨다. 바울의 고생은 춥고 배고프다는 표현으로는 너무 약하다(27).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래야 하나? 특히 목사는 다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린 위대한 제자가 적지는 않지만 이것이 모든 전도자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런 짐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한국 교회가 예비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는 것도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듯하다). 목사라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의 말에서 답을 찾는다면 자신의 달란트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고전 7:7).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정신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29. 장사라는 것이 얼마나 힘 드는 일인지 모른다. 무슨 장사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가게를 준비하는 일, 물건을 구매, 분류, 배치, 재고정리 하는 것, 천태만상의 손님을 상대하는 일, 현금관리, 직원관리... 사도바울 식으로 말한다면 장사에서 가장 힘 드는 일이 무엇일까?

**손님이 적은 것(오지 않는 것) = 교회를 위한 열려(28)** 손님만 많다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견딜 수 있단다. 손님이 없으면 편하다고? 장사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이다. 그게 가장 고통스럽단다. 바울은 육체에 가해지는 모든 아픔보다 교회에 열려스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고생한 것보다 그렇게 고생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아프다.

30. 실족한(죄를 지은) 성도 앞에서 가장 사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애타하는 모습:** 바울은 그런 성도에게 야단치고 책망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아파했다. 이런 약한 모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30). 이런 태도가 바울을 더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다.

31. 하기 싫은 자량을 잔뜩 늘어놓았지만 아무래도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덧붙인 말이 30절과 31절이다. 30절은 '내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약한 점이다'는 뜻으로 이상의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31절은 무슨 의미로 덧붙였는가?

**나의 이 자랑이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셈이다. 요즈음에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는 않았다.

32.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친 얘기는 왜 하지? 이것도 자랑인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들려줄 사도가 된 첫 증거 아닐까?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고난이 시작되었다. 다메섹으로 갈 때만 해도 기세등등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겠느냐 말이다.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도 자랑이라면 자랑이다. 왜냐면 사도된 증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고린도후서 12장

1. 목사가 '나도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하루에 몇 시간 쉼이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선전해야 한다면 느낌이 어떨까?

**죽기보다 삶은 일이어야 한다:** 그렇게 자기를 선전해야(=자랑해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목사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모든 역울함을 다 뒤집어쓰고 예수님처럼 말없이 비난을 다 뒤집어쓴 분들도 있더라. 말없이 기다릴 수 없어서 해명을 해야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바울의 자랑은 이런 측면이 강하다. 거짓 사도들의 길만 번지르르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철없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2. 자랑하는 내용이 왜 무익한 걸까?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인간적인 요인)이 복음 전파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체험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지금은 이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비극이다. 전도자가 인물이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넉넉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걸 우리 생각하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동원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영터리 사도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

3. 부득불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정말 자랑할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본문에 있다면 무엇일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았지만 그것을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한다.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다.

4. 간증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 스스로는(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일이다.

5.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떨까?

자랑이 하고 싶어서 못 견딜 것이다. 자랑은 아니라도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적어도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은 '~와 같더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자랑하지 않았다. 조금 시작하다가 말았다.

6. 천국을 보고서도 14년 동안 어떻게 말하지 않고 견뎠을까?

**해서는 안될 말(=말할 수 없는 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가히 이르지 못할 말) 도 있었기 때문(4):** 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이 전혀 없을 만큼 놀라운 곳 아닐까?

7.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본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일까?

**진짜 자랑거리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라는 말을 의역하면 '이 정도 돼야 제대로 자랑거리가 되겠으나'라고 할 수 있다. 자랑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랑거리라는 말이다.

8. 바울은 무엇이 두려워서 자신이 본 것조차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사람들이 바울을 과대 포장하는 것(6):** 이런 자랑거리가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바울이 그런 내용으로 간증집회를 열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려왔을까? 그런데 왜 입을 다물고 약한 것만 자랑하려고 하는가? 이런 체험이 없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까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 아닐까? 최종권위는 말씀이어야지 어느 누구의 체험이나 계시가 우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베드로가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깨달았다(행 11:16).

9. 바울이 굳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9):** 그런 약한 것이 없다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음을 알고 하는 말이다.

10. 바울의 말(7-9)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가시(사단의 사자)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을까?

**큰 은혜를 받은 자(=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11절의 사도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자):** 죽을 목숨을 살려줬다면 나머지 일들이야 애들 말로 껌값 아니겠는가!

11.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사례로 이 본문이 잘 쓰이는 것 같다. 어떻게 위대한 바울의 기도를 세 번이나 들어주시지 않는가?

**잘 들어주셨다:** 바울의 원대로 되는 것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바울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란 생각은 너무나 어린 생각이다.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깨닫는 것과 깨달은 것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도다.

12. 바울을 몹시 괴롭힌 이 사단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므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럴만한 사건이나 말씀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

**약한 시력, 안질:**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에 쬐여 사흘이나 앞을 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갈 4:15)는 말에서 추측할 뿐이다. 그 외에 못생긴 외모, 안질 등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것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13. 사단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몹시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바울의 시각은 어떻게 다른가?

**바울은 그 가시를 보고, 하나님은 베풀어주신 은혜를 본다:** 고통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계속 고통스럽다. 시각을 틀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피부가 몹시 가려우면 물파스를 바른다. 물파스의 화끈거림 때문에 가려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고통도 있고 은혜의 감격도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건지 감격스런 삶을 살 것인지 결정된다. 삶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시각을 바꾸는 일이 훨씬 쉽다.

14. 억지로 시킨다고 하나? 그런다고 칭찬을 받아야겠다(11)?

칭찬을 받았어야 마땅하다는 뜻이다(영역본 참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마땅히 바울을 변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책망이다.

15.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도성을 자랑하듯이 추천서를 내밀었으며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다. 반면에 바울이 내세운 사도된 첫 번째 증거(=표)는 무엇인가?

**참음:** 무슨 일에 얼마나 참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까? 그럴 만큼 참았다는 말 아니겠는가?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분이니 얼마나 참았을까? 교회의 일꾼이라면 제일 먼저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신학교 가기 전에 참는 법부터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 참는 것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도의 표이다.

16.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슨 공평치 못한 짓을 했는가?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다른 교회에는 폐를 좀 끼쳤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폐를 끼치지 않아서 미안하다? 재물을 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바라지도 않았음을 염두에 둔 표현 같다. 스승의 날 선물 가져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선생님이 선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더니 뜻밖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선물을 준비한 학생들이 상처를 받더라는 것이다. 진심어린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 만에 습득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이다. 식사대접 하겠다는 것을 잘못 거절하면 크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 혹시 이런 식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과하는 걸? 아무래도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 과대평가 하는 것 같다.

17. 좋은 선물을 사오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연인에게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한 마디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14):** 바울이 연애를 했더라면 정말 잘 했을 것이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진한 표현을 다 쓰는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연애감정 이상을 느꼈으리라. 월급이 적어서 미안해 하는 남편에게 '누구는 매달 얼마를 가져오던데' 하며 굶어대는 부인과 '내게 소중한 것은 월급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부인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18. 바울이 언제 고린도를 방문했기에 이번에 가면 세 번째인가?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첫 번째고, 에베소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아마도 3차 전도여행 중) 잠깐 다녀온 것이 두 번째다. 이른바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19. 바울이 성도들의 재물을 탐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대적자들도 부인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비난하는가?

**궤계로 너희를 취하였다(16):** 사기를 쳤다는 말이다. 직접 사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보내라고 하고는 착복하려고 한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진심을 이렇게 헐뜯는 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모금한 헌금을 각 교회의 대표들이 직접 지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

20. 지금까지 자랑도 하고, 야단도 친 것이 변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변명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변명은 나를 위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자신을 자랑하고, 때로는 변

명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는 노력이다.

21.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보기를 원하는 '나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너희의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나의 원하는 것:** 거짓 사도들을 배척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바로 서는 것

**너희 원치 않는 것:** 바울이 성도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

부디 이런 모습으로 대면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렇게 간절하게 글을 쓰는 것이다.

## 고린도후서 13장

1. 이제 한 번 더 가면 세 번째 가는 셈이란다. 바울이 두 번이나 고린도에 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는 전도하러 가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핏에 빠진 것을 바로 잡으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모양이다(아마도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잠깐 다녀온 듯함, 2:1).

2.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신 19:15절을 참고하자.

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편지를 경고하는 것이다(7절).

3.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무슨 힘이 있는지 본문에서 찾아보자.

**(10절)주께서 너희를...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바로 그 권세다(=출교, 마 16:19, 18:18). 훗날 중세에 황제까지 굴복시킨 그 권세다.

4.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함'이다. 그게 그렇게 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걸만 번지르르 하고 권위적인 자들을 따르며 약하고 보잘 것 없는 듯한 바울을 무시하는 것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수준 탓이다. 물건을 볼 줄 모르고 상표만 따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어야 하는데...

5.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자신의 약함:** 자신이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6.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를 향하여'란 말이 어느 말을 꾸미는가?

**살리라(=대하리라):** 너희를 대할 때 힘없이 죽은 자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산자로서 대면하겠다는 뜻이다. '한 번 죽어볼래?'

7. 일부이겠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야말로 약한 자이다. 그러나 자신이 결코 약한 자가 아님을 보여주겠다. 누구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은 비록 죽은 자처럼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처럼 지낼 수 있지만 복음이 위협이 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8. 자신들이 믿음에 있는가를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확인함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를 따져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충성을 다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끝이 없다. 믿음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9.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누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가? 쓸데없이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쏠리지 말고...

**너희 자신들:**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을 시험하고 있었는데 정작 시험해야 할 대상은 바울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마 7:5, 눅 6:42).

10.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7)?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말이며 결국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도권의 인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구원을 얻는 것)이다.

11.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런 말을 사용해야 할까?

목사, 장로, 선교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아닐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버림을 받으셨음을 알고, 믿고, 감격하는 자라야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12. 바울은 버리운 자 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6)?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할 리는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오직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직이 흔들린다면(=성도들에 의해 바울이 버리운 자가 된다면)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13. 자신은 약하고 다른 이들이 강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표가 진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8)**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진다면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14. 바울 사도께서 편지로 이렇게 엄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10)** 사도가 성도들 앞에서 사도의 권세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다.

15. 마지막 인사말로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로를 받으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오히려 위로 받을 사람은 바울 아닌가?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라, 서로 격려하라는 뜻이다:** '위로'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가 그렇게 넓단다. 문맥상으로는 가장 어울리는 번역이 '서로 격려하라'일 것 같다.

16. 13절은 어디서 많이 들던 말인데?

**축도:** 일반적인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여기서는 왜 성자가 제일 먼저 언급되었을까? 아이들이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보다는 자신에게 용돈을 주는 엄마를 더 고맙게 여기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일은 성부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감격은 성자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17.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슨 뜻인가?

**성령과 성도의 교제(연합)** 교통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코이노니아'이다.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타락했음에도 온갖 희생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이것이다.